

서울시 문제에 대하여

유두선 교수

2011년 서울시 국어 문제는 대체로 무난한 문제라고 평할 수 있겠다. 매년 예상외의 문제가 나오거나 지나친 국문학사 위주의 문제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출제되었다.

문법이 7문제, 문학이 10문제, 독해가 2문제, 한자가 1문제 출제되었다. 출제 문제의 분포를 볼 때 앞으로 서울시는 독해보다는 문학에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하고, 특히 국문학사, 고전작품, 띄어 쓰기 공부를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겠다. 시도 낮은 작품이 수능 형식으로 출제되었음을 명심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1. 다음 중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어문규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그곳은 아직 한 겨울이라 날씨가 좋지 않았다.
- ② 요즘 풀을 뽑고 마당을 늘리는 일에 재미가 붙었다.
- ③ 그 아이는 헬썩한 얼굴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 ④ 모인 사람의 수는 건잡아도 100명은 충분히 넘어 보였다.
- ⑤ 이것은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야.

<해설>

- ② ‘붙었다’는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다.’는 뜻으로 바르게 쓰였다.
- ① ‘한겨울’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③ 헬썩한 -> 헬썩한
- ④ ‘걸잡아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는 뜻이다. 뜻으로는 ‘걸잡아도’를 쓴다.
- ⑤ ‘데’는 의존명사로 띄어쓴다.

정답 ②

2. 어법 상 자연스러운 문장인 것은?

- ① 그 일은 하루 이틀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② 중요한 것은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구가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다.
- ③ 형은 무엇보다 야구를 좋아했고 나의 취미는 축구였다.
- ④ 열차가 서서히 도착하고 있었다.
- ⑤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해설>

- ② 관형어 다음에 ‘은/는’이 붙은 주어와 올 때 서술어는 ‘있었다는 것이다’로 쓴다.
- ③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양쪽 구조가 동일해야 한다. ‘나는 축구를 좋아했다’로 고친다.
- ④ ‘도착하다’는 완료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 있다’와 같은 진행상의 의미로 쓰일 수 없다. ‘들어오고 있다’로 고친다.
- ⑤ ‘의’를 포함한 명사구는 중의적 표현이다. 여자가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본능이다.

정답 ①

3.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모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워크샵(workshop), Seodaemun-gu(서대문구)
- ② 팸플릿(pamphlett), Cheonglyangli (청량리)
- ③ 슈퍼마켓(supermarket), Youngdungpho (영등포)
- ④ 심포지움(symposium), Gyeongbokgung(경복궁)
- ⑤ 앙케트(enquete), Biwon(비원)

<해설>

- ① 워크숍 ② Cheongnyangni
- ③ 슈퍼마켓, Yeongdeungpo ④ 심포지엄

정답 ⑤

4.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뭐라고?”라고 물었다.
- ② 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 ③ 차가 끊겨 걸어 갈 수 밖에 없었다.
- ④ 사과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다니.
- ⑤ 말로만 큰 소리 친다.

<해설>

- ① ‘라고’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 ② ‘너뿐만’은 붙여 써야 한다. ‘뿐만’은 명사 뒤에 오면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③ ‘걸어가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밖에’는 뒤에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붙여 쓴다.
- ④ ‘는커녕’은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⑤ ‘큰소리친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정답 ①

5. 다음 중 어문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ㅎ 종성체언’은 뒷말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 ② 한자어와 한자어 형태소 사이에 사잇소리가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지 않는다.
- ③ ‘퇴간, 회수’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④ ‘입때’는 ‘이+때-이ㅂ때’로 분석된다.
- ⑤ 순 우리말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해설>

한자어 사이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나, ‘찾간, 뒹간, 곳간, 셋방, 숫자, 횃수’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 ① ‘ㅎ 종성체언’이란 옛말에서 체언 뒤에 ㅎ이 뒤따르는 것을 말한다. 현대어에서는 이 단어들 뒤에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를 표기할 때, 소리를 고려하여 뒤 단어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살ㅎ고기 = 살코기) 한글 맞춤법 31항에 규정
- ④ ‘입때’는 ㅂ이 첨가되는 단어로, 역시 한글맞춤법 31항에 규정
- ⑤ 사잇소리 중, 된소리 첨가에 대한 규정 설명이다.
바다+가=바닷가[바다까/바단까]

정답 ③

6. 맞춤법 표기가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솔직히, 넝쿨, 우레, 삼가다
- ② 오뚝이, 육개장, 널빤지, 깡소주
- ③ 구레나룻, 오랜만, 햅쌀, 어리숙하다
- ④ 일찍이, 멧쟁이, 곱배기, 오순도순
- ⑤ 늘그막, 딱따구리, 오뚝이, 넓다랗다

<해설>

- ② ‘안주 없이 먹는 소주’는 ‘강소주’로 표기한다.
- ③ ‘어수룩하다’가 맞는 표기이다.
- ④ ‘곱빼기’가 맞는 표기이다.
- ⑤ ‘널따랗다’가 맞는 표기이다.

정답 ①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공탑에서 다시 돌계단을 오르면 정혜사 능인선원이 나온다. 정혜사 앞뜰에 서서 담장을 앞에 하고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면 홍성 일대의 평원이 일망무제로 펼쳐진다. 산마루와 가까워 바람이 향시 세차게 불어오는데, 살면서 쌓인 피곤과 근심이 모두 씻겨지는 후련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이 호탕하고 맑은 기분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질 것이다. 정혜사 약수는 바위틈에서 비집고 올라오는 샘물이 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의 석조에 넘쳐흐르는데 이 약수를 덮고 있는 보호각에는 '불유각(佛乳閣)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부처님의 젖이라! 글씨는 분명 스님의 솜씨다. 말을 만들어낸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누가 저런 멋을 가졌던가.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설혹 틀린다 해도 상관할 것이 아니었다. (훗날 다시 가서 확인해보았더니 예상대로 만공의 글씨였다.) 나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그만한 크기로 인화해서 보며 즐겼다. 그런데 우리집엔 그것을 걸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임시방편이지만 나는 목욕탕 문짝에 압정으로 눌러 놓았다.

-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

- ① 돌계단을 오르면서
- ② 정혜사 능인선원
- ③ 정혜사의 불유각
- ④ 약수 보호각
- ⑤ 일망무제의 평원

<해설>

이 글 내용의 초점은 '불유각'이라는 현판을 쓴 만공의 글씨와 내용이 지닌 멋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목은 ③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11. 다음 글의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접촉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한 접촉보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다. 매체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게 하는 구실을 하여 나중에 직접 어떤 사람에게서 새 어형을 접했을 때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자주 들던 것 이면 더 쉽게 그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새 어형이 전파되는 것은 매체를 통해서보다 상면하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라는 것이 더 일반화된 견해이다. 사람들은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언어변화에 가담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은 새 어형을 쓸 때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한다. 매체를 통해서 보다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 언어변화가 진전된다는 사실은 언어 변화의 여러 면을 바로 이해하는 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 ① 언어 변화는 결국 접촉에 의해 진행되는 현상이다.
- ② 연령층으로 보면 대개 젊은 층이 언어 변화를 주도한다.
- ③ 접촉의 형식도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 ④ 매체의 발달이 언어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⑤ 언어 변화는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곳일수록 그 속도가 느리다.

<해설>

괄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괄호 뒤에는 새 어형이 전파되는 것은 매체를 통해서 보다, 상면하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라는 것이 더 일반화 된 견해라고 했다. 따라서 언어 변화에 있어서 접촉의 형식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③

1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맞는 것은?

- ① 절대절명의 순간 그를 구한 것은 옛 친구였다.
- ②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
- ③ 할아버지께서는 30년 전 훌훌단신으로 고향을 떠나셨다.
- ④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었다.
- ⑤ 식구들을 이끌고 그는 고향에서 몰래 야밤도주하였다.

<해설>

- ① 절체절명, ③ 혈혈단신, ④ 풍비박산, ⑤ 야반도주가 맞다.

정답 ②

13. 다음은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우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 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 ① 작가는 ‘봉별기’, ‘종생기’, ‘지주회시’를 썼다.
-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
- ③ 1930년대 발표된 풍자소설이다.
- ④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맞추어져있다.
- ⑤ 해학성과 토속성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따뜻한 인간애와 함께 날카로운 사회적 통찰력을 보여준다.

<해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면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1930년대에 발표된 소설이지만, 풍자적 성격의 소설은 아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작품이다.
- ④ 이를 통해 1930년대 지식인의 자아분열 등을 나타내고 있는 소설이다. 일상성을 강조한 소설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인 ‘나’와 아내의 비정상적인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작품이다.
- ⑤ 토속성이나 따뜻한 인간애는 볼 수 없다.

정답 ①

14. 다음 두 시의 공통점으로 바른 것은?

(가) 분명히 입성인걸, 하염없이 앓은 이몸 한자락 하늘끝에 머흐는 구름인걸 목숨이 잠시 입었다 벗어두고 가지만 <p style="text-align: right;">- 김상옥, 몸</p>
(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p style="text-align: right;">- 천상병, '귀천'</p>

- ① 주지주의적 시이다.
- ② 제재는 하늘이다.
- ③ 삶에 대한 관조적 시선이 드러난다.
- ④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
- 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다.

<해설>

(가) 와 (나)는 모두 삶을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조적 시선이 바른 답이다.

정답 ③

15. 고전시가의 하나인 정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백제시대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 ② 행상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고 있다.
- ③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가요다.
- ④ 주술성을 지녀 집단적으로 불려졌다.
- ⑤ 고려시대 속요로 불려졌다.

<해설>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로 고려 속요 형상을 보여 주며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한글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며 행상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노래이다. 주술성이나 집단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④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고대 발연변색이 되며 요두전목에 붉으락 푸르락 눈을 간간지런하게 뜨고 눈썹이 꽃꽃하여지면서 코가 발심발심하며 이를 뾰드득 뾰드득 갈며 온몸을 쭈신 입 틀 듯하며 매핑 차는 듯 하고 앉더니

“허허 이게 웬 말이오.”

왈각 뛰어 달려들며 치맛자락도 와드득 좌르륵 찢어 버리며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다 던지면서

“무엇이 어찌고 어째요. 이것도 쓸데 없다.”

명경(明鏡) 채경 산호죽절을 두루 쳐 방문 밖에 탕탕 부딪치며 발도 동동 굴러 손뼉치고 돌아앉아 자탄가(自嘆歌)로 우는 말이

“서방 없는 춘향이가 세간살이 무엇하며 단장하여 뉘 눈에 괴일꼬. 몸쓸 년의 팔자로다. 이팔청춘 젊은 것이 이별될 줄 어찌 알랴. 부질없는 이내 몸을 허망하신 말씀으로 전정(前程) 신세 버렸구나.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①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의 차림새를 묘사하여 상황을 말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생활 방식을 들어서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생김새를 묘사하여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인물이 가진 살림살이 등을 들어 그가 처한 상황을 밝히고 있다.

<해설>

이 도령이 춘향이를 서울로 데려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자 춘향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분노와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답 ①

17. 다음 문장 속의 한자어가 옳은 것은?

- ①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障害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 ② 절대 큰 꽃 장식은 謝絶입니다.
- ③ 격조와 稟議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 ④ 채권자가 적절한 채무 移行을 청구함.
- ⑤ 십만 원에 上堂하는 상품을 받음.

<해설>

- ①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장애(障碍)’가 맞다.
- ③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의미하는 ‘품위(品位)’가 맞는 한자어이다.
- ④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의미하는 ‘이행(履行)’이 적절하다.
- ⑤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함’의 의미로 쓸 때에는 ‘상당(相當)’이 맞는 표현이다.

정답 ②

18. 다음 밑줄 친 부분의 현대어 풀이로 잘못된 것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緣연分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혼나 젊어 잇고 님 혼나 날 괴시니,
 이 므옵 이 스랑 견줄 티 노여 업다.
 ㉢평생싱애 願원호요티 혼디 네자 혼얏터니,
 엇그제 님을 괴셔 廣광寒한殿殿의 올낫터니,
 ㉣그 더디 엇디호야 下하界계에 느려오니,
 울적의 비슨 머리 얼키언디 三삼年년이라.

- ① 이몸이 태어날 때 입을 따라 태어나니
- ② 나 혼자만 젊어있고 입은 홀로 나를 괴로이 여기시니
- ③ 평생에 원하되 입과 함께 살아가려 했더니
- ④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파로 그리워하는고?
- ⑤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왔는가?

<해설>

정철의 가사 '사미인곡'의 앞부분이다. '괴시니'는 '사랑하시니'라는 뜻이다.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나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로 풀이해야 한다.

정답 ②

19. 이 글의 지은이의 글을 쓴 목적으로 바른 것은?

삼가 생각건대 공경을 바치고 예를 다하는 것은 임금의 이에 스승을 얻는 것이요, 어진 자를 천거하고 능한 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돕는 바입니다.
 신이 전번에 윤명(綸命임금의 명(命))을 받들어 오래도록 서연에서 모셨는데, 거지(擧止)가 우소(迂疏)하여 족히 잘못을 바꾸지 못하였고, 견문(見聞)이 거칠어서 올바르게 바꾸는 데에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신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차마 속이겠습니까? 하물며 백발은 성성하고 눈까지 어두움에리까! 귀는 허승(許丞)처럼 어둡고 팔뚝은 두자(杜子)처럼 볼수가 되었습니다. 헌지(軒墀)를 사모하다가 진실로 상유(桑榆)의 늦은 햇빛을 거두지 못하면, 구렁에 굴러떨어져 송백(松栢)이 겨울에 푸른 절개를 보전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 ① 나이 어린 임금에게 완곡하게 진언함.
- ②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죄함.
- ③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
- ④ 늙고 병든 신세를 하소연함.
- ⑤ 벼슬아치의 도리에 대해 충고함.

<해설>

'어진자를 천거하고 능한 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돕는 바입니다'에서 답의 판단 근거를 찾아 보자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어진 사람을 천거한다는 내용이다.

정답 ③

20. 다음 글의 장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주몽의 신이한 잉태는 신이한 출생으로 이어진다.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나 물으니, 대답하여, "나는 본시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여러 아우들과 나와 놀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라 하고 나를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가의 집 속으로 유인하여 남몰래 정을 통하고 가버린 뒤 돌아오지 않으므로 부모는 내가 중매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서 이곳으로 귀양보낸 것이라 했다. 금와는 이상하게 여겨 그녀를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 그녀가 몸을 피하자 햇빛은 다시 쫓아와 비쳤다. 이로 인해서 태기가 있어 알 하나를 낳으니 그 크기가 닳되들이 말(斗)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니 모두 먹지 않고 또 길에 버리니 소와 말이 그것을 피해 가고,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 주었다.

- ① 설화문학의 하위갈래에 속한다.
- ② 상징의 언어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 ③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푸는 이야기이다.
- ④ 일상적 현실과 합리를 초월하는 세계를 드러낸다.
- ⑤ 증거물을 근거로 진실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해설>

제시문은 '동명왕신화'에 대한 것이다. 신화와 거리가 먼 설명을 찾으면 된다. ⑤는 전설에 대한 설명이다. 전설은 역사적 증거물이 있는 것이다.

정답 ⑤